

동승학술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언어학자 北愚 桂奉瑀(1880-1959)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라도 외국에 나가 이방인으로 사는 건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 잃은 이방인의 삶이 어떨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일제강점기, 간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의 향량한 별판으로 휩쓸리면서 신산(辛酸)한 삶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고려인이라 부르는 동포들이지요. 고향 땅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은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먼 타국 땅까지 흘러들어간 과정이 곧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싸우는 과정이었으니 그 몸부림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상황에서도 민족학교를 세우고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중심에 계봉우(桂奉瑀, 1880-1959)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연구를 숙명으로 생각했던 민족주의자

계봉우는 함경도 영흥(永興)의 관노(官奴) 출신 빈농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집안이 미천하였던 만큼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는 고향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한일병합 이전까지 태극학회 영흥 지회에 가입하여 애국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계봉우는 1910년과 1919년 두 차례 고국을 탈출하였고, 이후 간도와 연해주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였다.¹⁾ 언론인이자 교육자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우리의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는 일이었다. 역사와 언어를 이해하지 않는 한 민족의 식도 형성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국땅에서 뿌리내리고 활동하였던 만큼 민족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문제는 그에게 절박했던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우리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은 어쩌면 숙명이었을지도 모른다. 1947년 발간된 그의 유인본 문법서 『조선문법』의 머리말에서 우리말 연구를 숙명으로 삼은 노학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는 이십여 년의 적공으로서 조선어를 연구하였고, 조선어 교과서도 두 번이나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편찬(필자 주: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가 조선어교과서의 편찬을 허용함으로써 시작된 교과서 편찬 사업)에도 사양할 마음이 없었으며, 비록 사양하려고 하여

1) 桂奉瑀는 1910년 12월 국내를 탈출한 후 북간도에서 간민교육회(懇民教育會), 간민회(懇民會) 등 민족운동단체에서 민족교육과 한인 자치 강화를 위해 활동하였고, 길동(吉東) 기독교전도회를 통하여 기독교 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6년 11월 일제당국에 의해 북간도 하마탕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거주제한을 받고 있다가 1919년 8월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다. 북간도에서 활동하다가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였지만, 이후 이동휘 등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도 사양치 못할 것까지도 또한 스스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나로 하여금 5학년-10학년까지의 조선어 교수에 대한 설계안을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따라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점차 쓰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웬일일까? 조선인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던 것도 그만 정지되고, 교과서 편찬문제도 그만 정지되었다. (중략) 그렇다고 붓을 정지하려고는 아니하였다. 그 전으로부터 겨를만 있으면 쓰려던 것이니까.” (『조선문법』의 머리말 중에서)

계봉우는 강고한 민족의식을 견지하면서 외부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말 연구를 지속했으며, 연구 결과를 우리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겨를만 있으면 쓰려”했다던 그의 말에서 ‘민족이 있고 민족의식이 분명한 한 민족어는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과 ‘민족어가 유지되는 한 민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계봉우는 우리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숙명처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강고한 민족의식은 그가 진행했던 우리말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는 우리말의 어원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도드라졌다.

“이제 나는 조선말의 어원을 다른 민족의 말에서 찾으려고 아니한다. 또는 조선화된 한자어에서도 찾으려고 아니한다. 조선사람의 본말 - 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용하는 순조선말, 한 학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이른바 방언의 범위 안에서 그 대체나마 찾으려고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 역시 역설 및 오해라는 후세의 조롱을 받지 않을까? 그런 조롱을 받아도 좋고, 받지 않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조선말의 되어진 법』의 서론 중에서)

계봉우는 우리말을 중국의 한자어에 기대어 설명하는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말의 기원을 우리말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는 그의 표현대로 역설을 낳기도 했다. 한 예로, 그는 ‘돌을 갈(磨)다’와 ‘밭을 갈(耕)다’와 ‘자리를 갈(替)다.’를 들면서 이들 ‘갈다’가 ‘돌을 갈다’의 ‘갈다’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저서 『북방민족의 말』(1955)을 보면 그가 역사비교언어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추고 있었고 언어유형론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²⁾ 그가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방민족의 언어를 비교하고 있음은 이 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어 비교

| | | | |
|------|----|----|-----|
| 조선어 | 물 | 말 | 금 |
| 골드어 | 무리 | 모리 | 아이신 |
| 길락그어 | - | 모리 | 아이씨 |
| 오리춘어 | 무 | - | - |

계봉우가 『조선말의 되어진 법』에서도 어근으로 되는 자음의 직능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비교언어학적인 연구 방법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학적 방법론을 이해했을 정도라면 계봉우는 조선말의 본말을 조선말에서만 찾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무리일 수 있음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2) 계봉우의 1955년 저술인 『북방 민족의 말』에는 1928년부터 골드어, 길리야크어, 오로첸어, 아이누어 연구를 시작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러한 시도를 하려 했을까? 민족어의 기원을 찾아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말의 되어진 법』에서 계봉우는 우리말의 가지에서 뿌리까지 또는 뿌리에서 가지까지 더듬어 보며 한줄기의 계통적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원 연구를 통해 우리말의 계통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원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시도를 당시 소련언어학의 주류였던 마르의 이론과 연결 지으려 한 것을 보면³⁾, 민족주의자로서의 신념을 유물변증법적 논리와 관련지어 공고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어원연구에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체계적인 어원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계봉우의 연구는 어원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어원연구가 형태주의 표기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고려인 공동체의 우리말 규범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다

민족어 연구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어 연구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계봉우의 모습은 어문민족주의자 주시경을 연상케 한다. 사실 언어의 규범과 관련한 그의 학설도 주시경의 연구를 모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말은 일정한 규범이 있게 되어진 말이다. 그러나 예전의 사람들은 그 규범에 대하여 생각을 조금도 두지 않았다. 그들이 적어놓은 것을 본다면 단어(單語)에 있어 어근(語根)과 조어(助語)의 구별이 없었고, 어구(語句-基本單語)에 있어 어간(語幹-基本單語)과 어미(語尾-吐語)의 구별도 또한 없었다. 그전의 사람들만 어찌 허물하랴. 지금에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받침이만 쓰자는 소위 새 철자법 초안을 가지고서 종종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이지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쓰기는 얼마큼 쉬운 일이지만, 제법대로 똑바로 쓰기는 그리 쉽지 못한 일이었다.”(『조선말의 되어진 법』의 서론 중에서)

계봉우는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주시경의 형태주의 표기법을 조선어규범화의 방향으로 삼았다. 그는 우리말의 어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형태주의 표기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살음’으로 ‘바람’을 ‘발음’으로 ‘노래’를 ‘놀애’로 표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시경의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것이면서, 그의 어원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찍이 연해주 일대 고려인 공동체에서 채택한 조선어 표기법이 주시경의 형태주의 표기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를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계봉우는 이 논쟁에서 오창환(吳昌煥)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고려인 공동체의 우리말 규범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20년대 후반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우리말 규범을 통일하고자 했고,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1930년 통일 문법서라고 할 수 있는 『고려문전』(오창환 저술)을 발행하는데, 여기에서

3) 고영근(2008: 453)에서는 계봉우가 오창환을 비판하면서 마르의 ‘Stadial theory’에 기댄 어원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다리脚’를 ‘단다’의 불규칙 어간 ‘달’과 관련지음) 여기에서 고영근은 우리말의 어원에 대한 계봉우의 유물론적 해석은 옳고그름과는 관계없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고 했다.

채택한 표기법이 형태주의 표기법이다. 계봉우는 『고려문전』을 통일 문법서로 확정하는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그런데 계봉우가 생각한 우리말 규범과 『고려문전』의 규범은 형태주의 철자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기 세칙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

한 예를 들면, 『고려문전』에서는 ㅂ불규칙 현상을 적용하지 않은 ‘덥으니(暑)’를 채택한 반면, 계봉우는 불규칙 현상을 적용한 ‘더우니’를 주장했고, 『고려문전』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은 ‘기발(旗)’을 채택한 반면, 계봉우는 ‘기스발’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봉우는 『고려문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아홉 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오창환은 계봉우의 비판에 대한 반박 글을 열 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도 했다.

위기에서 더욱 빛났던 한 민족주의자의 집념

1920년대부터 고려인 공동체에서 우리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이 활성화된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등장한 소련정부가 민족어 장려정책을 펴며 민족어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자, 우리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주의 어문학자들의 의지와 소련정부의 민족어 장려정책이 만나면서 연해주 일대에서 진행된 우리말 연구와 교육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31년 고려사범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고, 1930년 최초의 통일문법서라고 할 수 있는 『고려문전』이 발행될 수 있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 우리말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계봉우는 고려사범학교 교원으로 우리말 교원을 양성하고 우리말 교과서인 『고려어 교과서』(1937)를 저술하는 일에 임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소련공산당이 좌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족학교를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근원지로 지목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어 교육이 심하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1938년 공포된 ‘민족학교 개편에 관한 결정’으로 이어졌고, 민족어교육이 금지되면서 우리말의 생존이 위협 받는 상황으로까지 치달게 된다.

계봉우는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1937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이주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의 우리말 연구는 그 자체가 투쟁이었다. 밖으로는 정부의 민족어 탄압, 안으로는 민족구성원의 민족어 경시 풍조와 맞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인센가 어려운 상황에서 꺾꺾 눌러쓴 계봉우의 필사본 문법서 『조선말의 되어진 법』(1941)은 당시의 절박감과 위기감을 응변하고 있다. 그는 1955년에 쓴 이 책의 후기에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표현했다.

“본서의 원본은 서론에 보인 바와 같이 지난 사십일 년에 쓴 것이었다. 그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던가? 내지에 있어는 일본의 총독정치가 조선 사람의 말과 글을 파멸의 구렁이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일어가 아니고는 기차표도 살 수 없는, 조선 사람의 성명까지 일본화를 강압하던 그 시기, 외지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에 외주한 조선인의 교육이 로어화하여 조선 사람으로서도 자기의 말을 멸시하는 그 시기이었다. 그러나 본서를 쓰게 되었나니, 그것은 조선말의 부흥기가 장차 돌아오리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조선말의 되어진 법』의 서론 중에서)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의 시기에도 계봉우는 우리말의 부흥을 믿으며 우리말 연구를 지속했다. 그리고 『조선말의 되어진 법』(1941)과 『조선문법』(1947)을 저술하였다. 그의 말대로 “겨를 만 있으면 쓰려”했던 결과이다. 그의 연구가 멈추지 않았기에 민족어교육이 재개되자마자 고

려인 공동체의 민족학교에서 우리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계봉우의 우리말 연구 특히 어원 연구는 후학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우리말 연구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했던 뜻은 고려인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연해주, 중앙아시아, 사할린 등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들이 현재까지 민족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공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국땅에서 우리말의 연구와 교육을 숙명으로 생각했던 한 민족주의자의 집념이 오늘날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한국어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봉우가 남긴 국어학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다.

계봉우의 국어학 관련 연구

- 1924. 『붉은 아이』(조선어독본)
- 1930.11.12-12.7 「고려문전과 나의 연구」, 『선봉』(9회 연재)
- 1937. 『고려어교과서』(강채정.계봉우), 하바로프스크 원동변강국립출판부.
- 1943. 『이두 집해(吏讀集解)』(유인본)
- 1947. 『조선문법』1.2(유인본).
- 1955. 『조선말의 되어진 법』(유인본)
- 1955. 『북방민족의 말』(유인본)

<참고문헌>

- 고송무, 「계 봉우의 생애와 우리말 연구」, 『한힘샘 주 시경 연구』5.6, 한글학회, 1993.
- 고영근,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서울: 제이앤씨, 2008.
- 윤병석, 「桂奉瑀의 생애와 저술목록」, 『仁荷史學』1, 인하역사학회, 1993.
- 조동걸, 「해제: 北愚 桂奉瑀의 생애와 저술활동」, 『北愚 桂奉瑀 資料集』1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윤병석, 「계봉우의 민족운동과 한국학」, 『한국학연구』2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조원형, 「20세기 초중반 한국어학의 사상적 면모: 주시경과 계봉우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2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반병률, 「러시아혁명 전후 시기 계봉우(桂奉瑀)의 항일민족운동, 1919~1922」, 『한국학연구』2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원광대학교 최경봉>